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위구르 기독교인들, 선교사 추방 이후 공산당과 무슬림 동족에 이중 박해 겪어**



중국 신장 지역에서 외국 선교사들이 추방된 이후,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 기독교인들이 공산당과 자민족 모두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고 기독뉴스 서비스 미션네트워크가 16일 전했다. 2017-2019년 사이,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이 중국 현대식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 이후, 중국 공산당은 일부 수용소를 폐쇄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일부는 운영 중이다. 캐나다 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Canada)의 밥 푸(Bob Fu) 박사는 “한 보고에 따르면 여전히 1만 6,000명 이상이 수용소에 있다”고 전했다.

수용소의 공식 명칭은 ‘직업 교육 및 훈련 센터’지만, 수용자들은 ‘강제 중국화’를 강요받고, 신앙 포기와 공산주의 이념을 강요받는다. 또한 위구르어 사용이 금지되며 성경을 포함한 종교 서적 소지와 같은 사소한 이유로도 처벌을 받는다. 위구르족 중 기독교인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접했다.

과거 신장 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은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돋고 지역 경제 지원과 위구르어 찬양을 작곡하고 성경 번역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선교사들은 모두 추방했고, 위구르 기독교인들은 외부의 보호 없이 중국 공산당과 무슬림 공동체에서 ‘이중 박해’를 겪게 됐다.

공산당은 위구르족이라는 민족 정체성과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이들을 박해한다. 또한 동족인 위구르인들은 주로 무슬림으로, 개종은 종족 정체성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기독교로 개종한 위구르인은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공동체에서 차별과 고립을 겪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알리무장 이미티(Alimujiang Yimiti) 목사의 경우다. 그는 한 미국인 선교사에게 자신이 중국 국가안보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고, 이 발언을 벌미로 중국 당국은 그를 ‘국가 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해 15년 형을 선고했다. 밥 푸 목사는 “그가 말한 감시 사실 자체가 유일한 기밀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신자는 복역 후 석방된 지 며칠 만에 다시 12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투옥됐다. 밥 푸 박사는 “이것은 법치가 사라진 가장 잔혹한 방식의 종교 박해”라고 비판했다. 순교자의 소리는 수감 중인 위구르 기독교인들의 자유와, 수용소 안팎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르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시편 18:48-49)

하나님, 소수 위구르 기독교인들을 향한 중국 공산당과 동족 무슬림들의 탄압으로 인해 수용소 안팎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 간구합니다. 인권유린과 자유를 억압하며 명분 없이 투옥하여,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이들의 악행이 진리의 책망을 받게 하시고, 포악한 자와 원수의 손에서 주의 백성을 건져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통해 들었던 복음의 생명력이 박해를 뛰어넘는 영혼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며, 진리 안에 강건한 교회를 통해 박해자들이 돌이켜 주의 구원을 감사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니카라과, ‘반정부 핵심 인사’ 코스타리카서 피살

국제사회에서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에 앞장섰던 전직 군 장교 출신 반정부 인사가 망명지 코스타리카에서 피살됐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로베르토 삼캄(66) 니카라과 예비역 소령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자택 인근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오토바이를 탄 괴한들은 배달부로 위장해 접근, 총격 후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삼캄은 당국의 박해를 피해 2018년 니카라과에서 코스타리카로 망명한 뒤 저술 활동과 언론 인터뷰를 왕성하게 진행하면서 오르테가 정권 유지를 돋는 군부 상황을 전하는 활동을 해왔다. 사망 전날에도 니카라과 망명 언론인 루이스 갈레아노의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오르테가를 중심으로 한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NL)의 반민주적 행태를 폭로했다. 현재 코스타리카 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니카라과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정치적 동기가 있는 타살이라는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니카라과 반정부 언론매체 라프렌사는 “삼캄의 사망이 니카라과 출신 망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기 집권 중인 오르테가 대통령(79)은 2018년 반정부 시위 탄압과 2021년 대선 전후 반대파를 강하게 압박하며 통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사무엘하 23:3-4)

하나님, 니카라과 독재정권에 대한 상황을 왕성하게 전했던 반정부 인사가 피살되어 니카라과 출신 망명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소식을 고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으려 정부 비판자들을 적으로 간주해 탄압을 지속해온 오르테가 정부를 꾸짖어 주시고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니카라과가 구름이 없는 아침 빛 같이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 인도, 인더스강 물줄기 차단 공식화…파키스탄 “전쟁 날 수도”

인도가 인더스강 물줄기를 자국으로 돌리겠다고 공식화하면서 파키스탄과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타임스오브인디아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인더스강 조약은 절대 복원되지 않을 것”이라며, “파키스탄은 정당하지 않게 받아온 물을 더는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는 최근 파키스탄과의 무력 충돌 직전 조약 효력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에도 해당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내무장관이 물줄기 전환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파키스탄은 인더스강 지류에 수자원의 80%를 의존하고 있어, 물길이 차단될 경우 농업과 수력발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지난달 CNN 인터뷰에서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의 조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잠언 8:13,15-16)

하나님, 수자원 대부분을 인더스강에 의존하는 파키스탄에 대한 인도의 강경한 대응으로 인해 서로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상황을 의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더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고 이런 위태한 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양국 위정자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부드럽게 하옵소서.십자가 복음의 회복이 유일한 소망이요 모든 문제의 열쇠임을 믿사오니 진리를 모르는 두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공의로 통치하여 주소서. 또한 몸 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든 영역에 세워져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죄의 샀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동성애자 헌혈 제한 완화…“헌혈 인구 62만 명 늘어날 듯”**



호주가 혈액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동성애자의 헌혈 및 혈장 헌혈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한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으로 헌혈 및 혈장 헌혈 인구가 62만 5,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그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막기 위해 HIV 노출 위험이 있는 동성애자의 헌혈을 제한해, 3개월 간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헌혈 및 혈장 헌혈이 금지됐다.

그러나 1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호주는 오는 7월 14일부터 혈장 헌혈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며 헌혈 관련 새로운 규정은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에선 헌혈자에게 3개월간 동성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묻지 않으며, 6개월 이상 한 명의 파트너와만 성관계를 한 이들은 성별 및 성 정체성과 관련 없이 헌혈할 수 있다.

적십자 호주 지부인 라이프블러드와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커비연구소(Kirby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이번 규정 변화가 헌혈 및 혈장 헌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예방 약물인 ‘프렙’(PrEP)을 복용 중인 사람들은 혈장 헌혈은 가능하지만 헌혈은 제한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완화를 두고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미국 FDA가 동성애자 헌혈 규제를 완화하려 할 때, 일부 전문가들은 “남성 간 성관계(MSM)는 여전히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주요 경로”라며, 헌혈 전 검사를 거치더라도 감염 초기에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위험을 경고했다.

또한 프렙(PrEP) 복용자는 혈장 헌혈은 가능하나, 약물로 인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 헌혈은 제한된다는 사실 역시 안전성 우려를 뒷받침한다. 일부 보수 의료윤리 단체는 “정치적 평등보다 수혈받는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라며,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선별 기준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MSM(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 그룹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률이 다른 집단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해 왔다. 영국도 비슷한 규정 완화를 시도할 때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동성애자 중에서도 파트너 수가 많거나 성적 행동이 빈번한 경우, 3개월 제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경고했다(출처: 뉴시스, 기도24·365본부 종합).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샀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로마서 6:21,23)

하나님, 에이즈를 유발하는 감염을 막기 위해 동성애자들의 헌혈을 제한하던 규정을 바꿔 환자의 안전보다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정치적 유익을 우선하는 호주 정부를 꾸짖어 주소서. 어둠 가운데 미혹되어 육신의 정욕을 채우며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사망으로 이끄는 자들의 부패한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사 회개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이 땅과 열방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우크라, 러시아에 포섭되는 청소년 증가에 단속 및 교육 강화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러시아 정보기관에 포섭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우크라이나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과 교육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과 경찰은 올봄부터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러시아 첩보요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위장 복장을 한 정보관이 교실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14세부터 형사 처벌 대상”임을 강조하고, 가벼운 유혹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텔레그램, 틱톡, 디스코드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물품 전달이나 빌전소 촬영 같은 단순 업무를 제안하고 수백-수천 달러의 보수를 제시한다. 그러나 상당수 청소년은 이런 일에 발을 들였다가 협박에 시달리며 점차 더 위험한 임무에 동원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지난달 말, 러시아에 포섭돼 병화, 테러, 기물파손 등을 실행하거나 계획한 혐의로 600여 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4명 중 1명은 미성년자였다. 또 지난 5월에는 러시아의 포섭 시도를 당했다며 자발적으로 신고한 미성년자 수가 50명에 달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야고보서 1:14,16)

하나님,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보수를 제시하여 어린 청소년들을 미혹하고 협박해 테러, 방화 같은 범죄에 가담시키는 러시아 정보기관을 꾸짖어 주십시오. 자기 욕심에 끌려 불법을 행하는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금보다 귀한 그리스도를 전부로 얻는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십자가 복음을 모두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통해 진실한 회개와 용서가 이뤄져 평안을 전하는 예수교회 되게 하소서.

▲ 미주 텍사스주,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9월부터 시행

텍사스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해당 조치를 시행하는 주가 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21일 상원 법안 10호에 서명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영어로 된 특정 버전의 십계명을 포스터나 액자 형태로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애벗 주지사는 성명에서 “텍사스는 미국의 꿈이 살아 있는 곳”이라며 “이번 입법 조치는 텍사스인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며, 텍사스를 가족이 살기 좋은 최고의 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벗 주지사는 이와 함께 학생과 교직원이 수업 중 기도하거나 종교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율적 시간 운영에 관한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보수 성향 단체들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케네디 대 브레머턴 교육구’ 판례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평가했다. 해당 판례는 미식축구 코치가 경기 후 기도한 행위를 보호하는 판결이었다. 보수 단체 ‘텍사스 밸류스’의 조너선 사엔즈 대표는 “이제 십계명이 모든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보이는 텍사스식 축복이 될 것”이라며 “텍사스의 사당과 연방대법원에 있는 십계명 기념비처럼, 이번 조치도 미국의 신앙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신명기 6:5-6)

하나님, 텍사스주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사랑하는 다음세대를 주께서 명하신 말씀의 터 위에 세우는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응하여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웃 사랑이 기쁨이 되는 학생들과 교사로 세워주소서. 또한 가정과 교회가 주 안에서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 주께 순종함이 이들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들을 잃은 기독교 가족의 신앙 고백**



라오스 북부 산악 마을에 사는 20대 후반의 젊은 어머니 파양(가명)은 최근 첫째 아들을 잃었다. 아이는 독극물이 들어 있는 음료를 마신 후 사망했고, 그 음료는 파양 가족을 해치기 위해 그녀의 친척들이 사람을 고용해 고의로 독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파양과 남편 라비는 개종 이후 마을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박해를 받아왔다. 공동체에서 쫓아내려 했고, 차별과 온갖 방법을 동원해 기독교 신앙을 포기시키려 했다. 올해 초 라비의 땅을 차지하려는 파양의 친척들과의 토지 분쟁이 발단이 되어 박해는 더욱 극단으로 치달았다. 라비가 땅을 포기하지 않자 분노한 그들은 독살 시도로 복수를 계획했다.

토지 분쟁이 있은 지 며칠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세 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큰아들은 끝내 숨지고, 두 자녀만 기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치료비 부담으로 퇴원할 수밖에 없었던 부부는 여전히 회복 중인 자녀를 돌보고 있다. 지난 속에서 병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던 이들에게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고통도 커다.

조사 결과, 파양의 친척들이 가족을 독살하려고 고용한 사람이 독을 집 안 음료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모두를 독살할 계획이었지만 아이들이 먼저 음료를 마신 것이다. 파양은 “아들을 잃은 것은 너무 슬프지만, 저는 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믿고, 또 알고 있다”고 말했다.

라비는 박해가 더 심해지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더욱 주님께 충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비의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성경에 나오는 육이 수많은 시험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주님이 육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다.

오픈도어는 라비 가족의 병원비를 지원했고 기독교 공동체도 함께 나서 회복을 도왔다. 그러나 위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비는 법적 절차 속에서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하여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며 범죄자들이 풀려났을 때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를 죽이거나 해치려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라며 박해자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부탁했다(출처: 미국 오픈도어, 기도24·365본부 종합).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로마서 4:20-22)

하나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으며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은 라오스의 기독교인 부부에게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신 구원의십자가가 심령에 사무칠 이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이후 모든 법적 절차에 주께서 친히 간섭하사 하나님만이 하실수 있는 방법으로 주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셔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40년 집권 우간다 대통령 내년 대선 또 출마

우간다를 40년 가까이 장기 집권 중인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80)이 내년 1월 차기 대선에 또 출마할 전망이다. 우간다 여당 국민저항운동(NRM)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2026년 선거에서 NRM 의장직과 당 대통령 후보직을 유지하기 위해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그의 출마는 예상됐던 일이지만 소속 정당이 처음 공식 확인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적도기니의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대통령, 카메룬의 폴 비야 대통령과 함께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장기 집권 지도자다. 1986년 1월 쿠데타로 집권한 그는 1996년 최초의 직선 대통령을 거쳐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선거에서 내리 승리하며 6선에 성공했다. 2005년 7월 대통령 3선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2017년 12월 대통령 나이 상·하한 규정을 없애는 등 장기 집권을 위해 2차례 헌법을 뜯어고쳐 비난받기도 했다. 그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7번째 임기를 맞게 되고 통치 기간이 무려 45년으로 늘어난다. 무세베니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2021년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팝스타 출신 야당 정치인 보비 와인으로, 그 역시 이미 2026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와인은 2021년 대선 당시 개표 결과를 부인하며 투표 조작과 기타 부정행위로 승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했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시편 140:8)

하나님,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며 부정선거의 의혹을 받는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2026년 대선을 간접하여 주사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악한 자의 헛된 소원과 악한 꾀가 이루지 못하게 하사 스스로 높이는 패역함을 그치게 하옵소서. 우간다의 교회가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파수꾼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소서.

▲ 이란, 휴전 이후 내부 단속 강화…반정부 시위 열릴까 주시

이스라엘과 12일간에 걸친 무력 충돌 끝에 휴전에 들어간 이란이 내부 체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이란 인권단체 HRNA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란에서 정치 문제나 안보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705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스라엘을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이 가운데 3명은 이미 24일 처형됐다. 쿠르드계 인권 단체 ‘행가우’는 처형된 이들이 모두 쿠르드족이라고 밝혔다. 분리주의 무장조직 쿠르드자유당(PJAK) 한 간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쿠르드족 거주지역에서 구금된 당원들이 500명이 넘으며,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돼 신체 검색과 휴대전화 검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이 이처럼 쿠르드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과 교전으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또다시 반정부 시위 등을 조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속의 고삐를 죄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동동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이사야 14:5-7)

하나님,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강한 탄압과 처형을 일삼는 이란 정권을 꾸짖어 주시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향해 억압적인 통제를 지속해 온 통치자들의 규를 꺾어주소서. 이란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들의 소리를 통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셔서 소동하는 이 땅을 조용하고 평온케 하여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무리가 주를 향해 소리 높여 노래하는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